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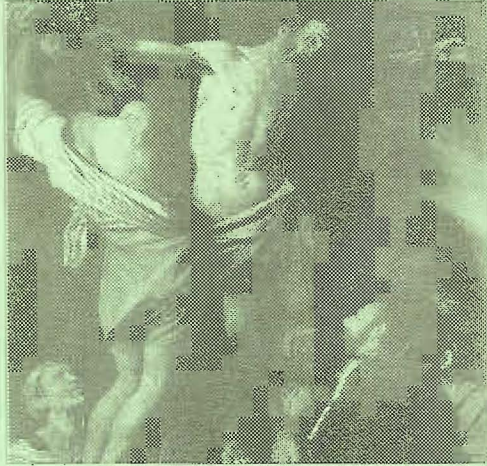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2주일 · 예수 성심 성월
제33권 30호(다해) 2013.6.23

[묵상]



성 안드레아의
십자가형
<카라바조,
17c, 나폴리
카포리몬테
국립미술관>

지상에서 이루신 일들을
중간평가 해보고 싶으신 예수님,
자신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세례자 요한, 엘리야, 살아난 옛 예언자.
모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느님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나 입 다물라고 하시니
이 대답도 틀렸나봅니다.
중간평가의 결과는 실패입니다.

왜 틀렸을까,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그리스도라는 감격에 찬 고백 안에
담기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보십니다.
고난과 죽음, 십자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없는
그리스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영터러 그리스도 선포를 금하십니다.

내가 선포하는 그리스도
허락하실까, 입 다물라고 하십니까!
내가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의 십자가 지기를 원치 않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걸까!
최종평가의 결과도 실패일까?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튼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테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30 오후 1:00 오후 1:45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타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3부 세상을 위한 말씀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의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요한 1,18)

하느님 말씀과 세상에 대한 투신

▶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고통 받는 이들

하느님의 말씀과 만남으로써 생겨나는 신앙은 우리에게, 인간
의 삶은 고통에 의하여 약화되었을 때라도 충만하게 살 가치
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게 합니다. 하느님은 행복과 생명을 위
하여 인간을 창조하셨고, 질병과 죽음은 죄의 결과로 이 세상
에 들어온 것입니다.(지혜 2,23-24 참조). 그러나 생명의 아버
지께서는 탁월한 의미에서 인간의 의사이시며 고통 받는 인류
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굶어 보십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의 고통
에 가까이 계시다는 것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강생하신 말
씀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고통을 받으셨고 돌아가셨으며, 당신
의 수난과 죽음으로 우리의 약함을 남김없이 받아들여시고 변
화시키셨다."는 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받는 이들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것은 불변입
니다. 이것은 성령의 활동에 힘입어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말
씀과 성사들을 통해서, 선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들이
하느님의 참모습과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며 형제적 사랑으로
행하는 도움들을 통하여 지속됩니다.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육신과 영혼의 참된 의사이신 그리
스도께 자신의 손을, 눈을, 마음을 빌려 드렸고 지금도 빌려 드
리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 사제들, 수도자들, 평신도
들의 - 흔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빛나는 증거에 대하여 하느
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말씀과
성찬례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님의 현존 앞으로 그
들을 데려가며 계속해서 병자들을 돌볼 것을 권고합니다. 그
들이 성경을 읽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조건 안에서 특별한 방
식으로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원적 고통에 참여할 수 있
다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움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2코린
4,8-11.14 참조).

▶ 하느님 말씀의 선포와 가난한 이들

107). 성경은 하느님께서 가난한 이들과 곤궁한 이들을 특별
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마태 25,31-46 참조). 세
계 주교 대의원회의 교부들은 복음의 선포와 목자들과 공동체
들의 노력이 우리의이 형제들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자주 지
적하였습니다. 실상, "첫 번째로 복음의 선포를 들을 권리를
가진 이들은 바로 빵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이들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에는 언제나 사랑의 봉사
가 있어야 하고, 그 봉사는 언제나 말씀의 선포와 거룩한 신비
들의 거행과 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속>

토 요	(연)
특전미사	(생)오세호 레이몬드, 박소영 프란체스카 & 박세준 요셉, 서재원 요한 & 서옥분 마리아
주 일 낮 미사	(연)이정웅 야고보, 권복남 모니카, 전시웅 요한, 김금전 모니카, 송기원 요셉 & 김제순 아가다, 고준희 제임스, 정학순 발바라, 주용범 아브라함, 이미란 마리아, 김영훈 세례자요한, 김종환 야고보, 주광자 안나, 이석중 & 박남길, 이용식 베드로 (생)권진성사대상자들, 이원숙 베로니카 & 이준 베드로 & 이진 미카엘, 이윤조 클라라, 임봉순 아네스 & 박재우, 민석준 토마스 & 미애 가정 & 민영준 마르코, 김평, 김용부 세례자요한 가정, 이준영 마르코 & 이케이미 크리스티나, 조태선 엠마, 김남호 율리아 & 최윤정 레지나, 이영자 로사, 토머스 동2반 가정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즈카르야 예언서(Zechariah) 12,10-11:13,1

화답송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주 - 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 - 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새벽부터
당신을 찾나이다.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이 몸은 당신을 애타게 그리나이다.○

○물기 없이 마르고 매마른 땅에서,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보나이다. 당신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두 손 높이 올리오리다.
제 영혼이 기름진 음식으로 배불러,
제 입술이 환호하며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정녕 당신은 저를 도우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에서 환호하나이다. 제 영혼 당신께
매달리오면, 당신 오른손이 저를 붙드나이다.○

제 2독서 갈라티아서(Galatians) 3,26-29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 음 루카(Luke) 9,18-24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313	200	236
봉헌	401	265	316
성체	교 백	289	305
파견	364	310	312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

세례를 받은 지 일 년 정도 지난 신자들의 피정모임이 있었습니다. 생활 나눔 중 어느 신자 분이 들려준 이야 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세례성사를 받고 신자가 되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없어지지 않더라도 적어도 가벼워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하느님을 믿는 것이 때로는 그전보다 내 삶을 더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의식도 못하고 지나갔던 행동들이 심한 죄책감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것이 하느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만큼 죄를 조심하게 되었고, 신앙의 삶이 어려워도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왜 신앙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루카 9,23)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자신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자기 결단이며, 삶의 실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데 마지막 걸림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재물이나 명예를 버리기도 목숨처럼 아깝지, 자신을 버린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활동에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나 자신을 버리지 못한다면 자기만족이나, 위선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의 욕심이나 집착 등은 어쩌면 가장 극복하기 힘든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택은 늘 하느님과 나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버리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결국 주님을 위해 자기를 버린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우선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실천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이미 십자가를 각오한 셈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매일의 삶 속에서 구현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지침도 주십니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루카 9,24)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결국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러나 그전에 세상 속에서 고통과 수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인간의 눈에는 당장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느님의 뜻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행위가 결국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왜 어리석은 바보처럼 십자가를 지고 갑니까?”라고 물으면 대답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 때문입니다.”이라고 말합니다.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장 비서실 수석비서

삶, 본래 아픈 것

노력하고 애를 쓴다고 세상 일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더군요. 사는 일이 생각보다 쉬울 때도 있어주면만 생각대로 살아가기는 커녕 세상은 언제나 생각보다 어려워 좌절하며 한탄하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과 맞닥뜨리고 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오히려 큰 축복이라는 걸 알겠더군요. ◆이영 아녜스/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보나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김교복 레오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서용숙 에스텔	현영화 베로니카
제물봉헌자			견진성사자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보나 보나	신덕례 데레사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견진성사 받으시는 분들 축하합니다!** ◆

오늘 우리 백삼위 공동체는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LA대교구 San Pedro Region 담당)을 모시고 기쁨의 주님잔치에 초대되어 미사 중에 견진성사 예식을 거행합니다. 성인교우 21명이 견진성사를 받고 더욱 굳건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교회와 세상에 봉사하게 되었음을 축하합니다.

- 일시 : 오늘 주일(6월23일) 오전 11시
- 주례 : 오스카 솔리스 주교님, 이장환 본당 신부님
- 견진성사자 명단 : 서재원 요셉, 서옥분 마리아, 홍광선 요셉, 윤화경 바오로, 이민선 마리아, 김원모 웬델리노, 김준 프란치스코, 하양숙 마틸다, 신인숙 오티리아, 김정아 테레사, 정은주 체칠리아, 윤선희 로사, 이희경 크리스티나, 이명환 요셉, 신혜정 로사, 김재인 바오로, 민희석 요한, 김지현 레오니아, 손은정 세라피나, 윤성진 안드레아, 김지희 체칠리아(이상 21명)
- 축하식 : 낮미사후 친교장

◆ **예비자 교리반 시작했습니다.**

- 교리기간 : 12월1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 세례식 : 12월25일 성탄대축일
- 교리지도 : 오마우라 수녀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안나회 '웃음치료' 특강**

- 일시 : 6월30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 강당
- 주제 :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 대상 : 건강하게 장수하고 행복해지고 싶은 분들
- 강사 : 손상언(웃음치료사)
- 문의 : 한 루시아 안나회장 ☎(310)738-4387

◆ **본당 모든 봉사자를 위한 피정**

- 일시 : 7월7일 주일 오후 1시~4시
- 대상 : 사목위원, 제단채장, 소공동체 부차장/구역장/반장,

- ◆ **올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백삼위 본당이 주관**
금년 추수감사절(11월28일) 합동 야외미사를 본당에서 주관합니다. 이 행사에 걸맞은 주제표어와 미사후 2부행사 내용에 관해 여러교우들의 의견을 공모합니다.
- 주제 표어 : 한 문장에 감사의 뜻을 표현하는 내용
- 2부 행사 : 미사후 각 성당간 친교를 나누는 2부 행사에 적합한 내용
- 제출 : 신중철 아브라함 사목회부회장 ☎(310)619-4343

주일학교/한글학교 교장

- 내용 : 봉사자의 은혜와 추수감사절 합동야외미사 준비 협력방안
- 강사 : 이장환 마르띠노 신부님
- 문의 : 최기남 야교보 사목회장 ☎(310)569-3940

◆ **2013년 제26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르코 5,34)
- 일시 : 7월27일(토)~28일(주일)
- 장소 : 패사디나 시티칼리지 강당
- 강사 : 박효철 신부(청주), 임문철 신부(제주), 정광호 신부(보스턴), 배기현 신부(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지도)
- 참가비 : \$25(본당구입시 \$20)
- 문의 : 김충섭 마틴 남가주 성령쇄신 봉사회 회장
- 연락처 : ☎(213)435-7570

◆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 모집**

- 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칫 나태해질 수 있는 자녀들에게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해지도록 도움을 주기위하여 본당 마라톤 동호회가 14세 이상 주니어 걷기/달리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장소 : 사우스 하이스쿨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213)256-5028

◆ **친교자리 봉사 담당**

- 6월23일(주일) : 토런스 서2반(카레덮밥 \$3)
* 주일학교 방학
- 6월30일(주일) : P.V. 1반(콩나물비빔밥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김 은 문두현 신순철 이근태 조소영	장숙경 김재영 민형기 신철규 이복임 조화숙	강태홍 김재희 박광자 안태갑 이상철 채양식	김대우 김정엽 박봉성 엄영희 이용무 최미열	김상규 김준호 박선희 원건희 윤석구 임분필 최희태	김양금 김호순 박인식 이근태 윤석구 임 순 한장환	김옥찬 김효진 서영주 윤 철 정연영 한창주
합계 : \$5,420							
주일미사 헌금 : \$3,510							
성전헌금	강미순 김준호 안태갑 임 순	장숙경 김호순 원건희 조화숙	강태홍 김효진 이근태 채양식	김대우 박봉성 이복임 최미열	김양금 박선희 이상철 최희태	김재희 박인식 이용무 한장환	김정엽 신순철 이일길 한창주
합계 : \$2,800							
감사헌금 : 박이레네 윤석구							

공지사항

◆ 주일학교 / 한국학교 방학...학생미사는 계속 드립니다.
본당 주일학교와 한국학교가 오늘주일부터 9월1일 주일까지 여름방학에 들어갑니다. 학교 수업은 없지만 주일학생미사는 계속합니다. 미사에 빠지지 않도록 자녀들을 잘 돌보시다.

◆ 주일학교 서머캠프

- 일정 : 6월28일(금)~30일(주일)
- 장소 : 테미쿨라 꽃동네 피정센터
- 대상 : 3학년~12학년
- 집합시간 : 28일(금) 오후 2시30분 성당 파킹랏
- 준비물 : 미사헌금, 슬리펑백,세면도구, 두터운옷, 타올, 주일학교 티셔츠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장 ☎(213)258-8665

◆ 고등부 신앙대회 (Steubenville, San Diego)

- 대상 : 8학년~12학년
- 일시 : 7월26일(금)~28일(주일)
- 참가비 : \$190
- 문의 : 황선홍 그레고리오 그룹리더 ☎(424)903-6637

◆ 목요 그룹 성서 공부반 개설 예정

매주 목요일 전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 성서공부반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수강을 원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개강날짜 및 자세한 정보는 추후에 알려드립니다.

◆ 백삼위 탁구동호회 회원 모집

- 대상 : 본당 교우 남녀노소
- 연습 및 강습 :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주일 오후 3시 강당
- 회비 : 연 \$50
- 문의 : 동호회장 김용스테파노 ☎(310)926-2248

남가주 소식

◆ 가톨릭 예수회 성경대학 5학기

- 주제 : '초대교회의 삶과 그 영성3'
- 강사 : 송봉모 토마스 신부(예수회 한국판구)
- 일시 : 7월26,27,28일(금,토,일) 오후 6시30분
- 장소 : LA 성 아그네스 성당(버몬트 + 아담스)
- 수강료 : \$50 ☎(323)731-4433

◆ KYCR 제22차 젊은이들을 위한 성령안의 새생활 세미나

- 일시 : 8월1일(목)~4일(주일)
- 장소 : 리버사이드 Divine Word 피정센터
- 지도신부 : 정브라이언 가브리엘 신부
(한글강의와 영어강의가 따로 준비되어있음)
- 주최 : KYCR 남가주성령쇄신청년봉사회
- 참가대상 : 18세~30대 미혼/기혼 청년
- 회비 : \$160(7월20일이후 \$180)
- 연락처 : 이원록 ☎(562)688-4322

소공동체 6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번호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6/15(토) 오후 6시30분
	2	김찬구 요한 701-6343	신중철 아브라함 936-9202 6/15(토) 오후 7시 강당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6/14(금) 오후 8시
토런스 서 장정진 베토니카 713-7779	1	이진향 아베스 989-0366	강인모 태오도시오 780-0369 6/22(토) 오후 7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진형태 요한 424-241-5988 6/16(주일) 베어캐년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김현숙 벨레타다 626-905-4114 6/7(금)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엄영숙 마리아 373-5662 6/21(금) 오후 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6/11(화) 오전 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6/29(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최미열 클라라 895-8624 6/15(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유영균 우르바노 985-2882 6/15(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정훈도 바오로 377-1271 6/14(금) 오후 7시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김관기 라파엘 541-3687 6/14(금) 오후 7시30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정치영 프란치스코 818-1799 6/14(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이귀란 아베스 377-6752 6/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12/13 회기 마지막 회의) 오후 1시 강당

다음주 단체모임

다섯째주 가정의 날

우리는 왜 손이 두개일까요?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이라는 책을 알고 계신가요? 70억 명이 사는 지구를 100인의 마을로 축소해서 흥미롭게 설명한 책입니다.

이 마을에는 아시아인 61명, 아프리카인 13명, 북남미인 13명, 유럽인 12명 등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33명은 기독교, 19명은 이슬람교, 13명은 힌두교, 6명은 불교, 5명은 천지 만물에 깃든 영혼을 믿고, 24명은 기타 종교이거나 무교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교인이 12억 명을 넘었다니 기독교인 중 천주교 신자는 17명인 셈이고요. 이런 식으로 식량, 에너지, 전쟁, 소독 불평등의 세계 문제를 알기 쉽게 전하는 책이라 저도 많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에게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책 제목이 마음에 걸립니다. 더 이상 세계를 '마을'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세계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일을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세상이 되었으니 지구촌이 아니라 지구 집, 그것도 바로 옆방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집이라고 해야 할 겁니다.

1994년, 아프리카 르완다에서는 100일간 100만 명이 처참하게 죽거나 다치고 200만 명이 옆 나라로 피신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국제사회는 한참 후에야 "어머,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했지만, 이제는 남수단이나 시리아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를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습니다. 유리벽 건너 옆방 사람이 배가 고파서, 혹은 병에 걸려서 괴로워하는 게 훤히 보이는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도와야 우리 마음도 편치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도울 사람 많은데 왜 다른 나라까지 도와?" 제가 많이 듣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력 10위권인 한국에서는 정부나 이웃 등 우리 힘과 마음을 합치면 얼마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반면, '옆방'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남기조차 어렵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3초마다 극심한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 벼랑 끝에 손끝만 걸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손 내밀어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랬듯이 말입니다.

우리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40년간 해외에서 막대한 원조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주던 나라에서도 '우리도 힘든데 왜 한국까지 돕느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을 어렵게 설득하며 우리를 끝까지 도와준 덕분에 한국은 1991년 원조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런 우리들이 신음하는 '옆방 사람'

들', '벼랑 끝 아이들'에게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보내는 건 마땅하고 옳은 일 아닐까요? 지구 집의 일원으로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말입니다.

저는 구호활동을 하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왜 손을 두개 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한 손은 정글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나머지 한 손은 우리보다 약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라는 뜻이라는 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손도 아름답지만, 그들에게 지금 자기 손안에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눠주는 손을 하느님은 훨씬 예뻐하실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금 두 손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은 하느님이 주신 그 손,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

◆한비아 비아 / UN자문위원, 이대 초빙교수

☞ 길을 찾는 그대에게

경쟁사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눈?

무한경쟁에 내던져진 자녀를 보면 측은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경쟁만이 유일한 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외면하면 낙오자가 될 것 같아 두렵기도 합니다. 경쟁사회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눈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경쟁이란 말은 서로 이기고자 겨루는 일을 일컫습니다. 서로 이기기 위해 겨룬다면 거기에는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가 같아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같은 목표이어야 경쟁이 성립됩니다. 서로 다른 목표를 두고서는 맞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녀가 도달했으면 하고 바라는 목표가 무엇이기에, 혹은 자녀 스스로 추구하는 목표가 무엇이기에 힘써 경쟁자들을 누르면서 나아가고자 하는지를 되물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만이 유일한 생존의 길이며, 거기에 뒤흔치면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경쟁은 내면화됩니다. 경쟁이 지닌 마력입니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이 옆을 못 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도 도달하기 어려운 길에서 옆도 함께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 아니라, 이겨야 할 대상으로 전략해버리고 맙니다. 삶이 주는 아름다움은 분명 경쟁보다 공존에 더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고 싶다면 경쟁이 아닌 공존을 말하십시오.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이웃사랑도 경쟁이 아닌 공존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홍경완 신부/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